생의 밑천으로 몸 하나면 충분하다

(열왕기하 13:1~25)

14.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15.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16.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17.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18.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으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19.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20.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21.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 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생의 밑천으로 몸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생의 밑천으로 몸 하나면 충분하다’
생의 밑천으로 돈이나 학벌, 출생의 신분이나 스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연예인 교회에서 3년 동안 교육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교육전도사라고는 하지만 당시 교회의 내부사정상 직분 이상의 역할을 하면서, 교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교인들과도 상당히 가깝게 지냈는데 그때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교인들 중에는 연예인들이 많이 계셨는데 오늘 본문과 연관 지어서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여자 연예인들 경우에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다이어트를 하십니다. 절대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이어트의 원칙을 넘어서는 일이 거의 없는데 어쩌다 생각보다 많이 먹었다면 그 만큼을 계산해서 끼니를 굶어버립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몸매를 유지해나가는 게 너무나 대단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뚱뚱하다는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우리나라에도 뚱뚱한 사람이 많고 미군부대나 외국에 나가서 살 때에는 뚱뚱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 옛날에 한국에서는 뚱뚱한 편이었다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일상적으로 하는 연예인들에게 어떻게 그리 쉽게 하느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했던 말이 기억에서 잊히지를 않았습니다. '전도사님도 몸으로 먹고 살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멋진 몸, 예쁜 몸, 배역에 합당한 몸을 가지고 먹고 산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생의 밑천이 되면 얼마든지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어마 무시한 밑천이 있는데 바로 몸입니다. 돈도 없고 스펙도 없고 출신성분도 좋지 않으며 심지어는 멋진 몸도 아니고 심지어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아마비가 있든지 사고를 당해서 신체를 잘 쓸 수 없게 된 분도 있으실 수 있고, 병이 들고 늙거나, 저처럼 뚱뚱할 수도 있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몸이면 되는데 이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밑천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내 몸 사용설명서"라는 말이 유행하고 주로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건강한 몸이 밑천이라는 것이 아니고 몸이 건강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의미와 100% 부합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의 성공적이고 기가 막히는 화끈한 삶을 살기 위한 생의 밑천은 몸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몸 외에 다른 것들은 오히려 걸리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몸 하나를 밑천으로 삼으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비즈니스를 성사시키신 분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어마어마한 일에 이 세상의 돈이나 스펙이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목수로 사셨을 때의 재능을 동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몸 하나 가지고 살았습니다.

본문의 열왕기하 11장부터 17장까지는 북 왕국 이스라엘의 예후가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아서 아합 왕조를 몰락시킨 이후인 BC.841년경부터 BC.722년에 앗수르에 의해 북 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의 기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 중에 남 왕국과 북 왕국의 왕

들의 이야기를 번갈아가며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두 북 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북 왕국 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앞서 보았던 아달랴의 칼날을 피해 성전에서 자랐던 남 왕국 유다의 요아스 왕과는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아서 아합 가문이 몰락한 시점에서 이 요아스 왕까지는 역사적으로 50년 정도가 흘렀는데 이 기간 동안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엘리사가 느닷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 왕과 요아스 왕 모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운데 엘리사가 등장하여 두 가지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엘리사 생애의 마지막 행적이 됩니다.
이제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요아스 왕이 듣게 됩니다.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한창 활동하던 30~40세였으니 그로부터 5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노환으로 인하여 죽음에 임박한 시기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엘리사는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원로였을 것입니다. 왕년에 엘리사가 행했던 모든 기적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요아스 왕이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찾아뵈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실재 존재를 끊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이름을 주셨으나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재 하나님의 존재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붙잡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연결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설계와 구성이 의미하는 바를 내 마음으로 끌어들여 내 것으로 삼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접근하는 것을 막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남긴 채 실제 하나님과 연결의 가능성을 차단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으로의 접근을 막았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던 요아스였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연결을 생활속에서 실천하던 사람은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의존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 앞에 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울며 슬퍼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활을 들어 화살을 창문 밖으로 쏘게 하며 그것을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게 합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이 세 번만 치자, 이 일을 엘리사는 안타까워하며 많이 쳤어야 아람에 대한 승리가 반복되어서 아람을 진멸시킬 수 있을 것인데 세 번만 쳤으니 아람과의 전쟁에서 세 번만 이길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언뜻 보면 이상합니다. 한 번 치거나 세 번 치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면 여러 번 치라고 미리 말을 하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였기 때문에 세 번을 쳤을 수도 있고,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엘리사가 그 화살에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했고 비유적으로 설교를 한 셈입니다. 화살을 쏘는 것과 화살로 땅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이 실제로 땅에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구원을 상징하는 화살로 땅을 치는 것도 역시 여호와의 구원이 땅에 임한다는 것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알아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왜 세 번만 땅을 쳤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획득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큰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면 내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내 육체를 사용하십니다. 즉 육체는 우리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머무시는 집인 것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여호와의 이름을 담으면 지성소 휘장 밖에 있던 분향단의 기도가 뜻하는 대로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시는 실재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이 육체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시게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데 이것이 본래 육체의 사용 용도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사의 존재 자체는 육체를 밑천으로 북 왕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던 자였습니다. 돈도 없었고 사적으로 거느리던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뛰어난 용병술의 귀재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육체를 밑천삼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북 왕국 내에서 엘리사의 존재의 의미는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 전에 길갈 벧엘 여리고를 거치는 도중에 엘리야의 떠나라는 말을 불사하고 자신의 마음을 엘리야에게 꽁꽁 묶었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따라와서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승천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마음이 엘리야와 묶인 채로 하늘로 올라갔음을 뜻합니다. 엘리사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사의 육체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점이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한 일은 이것뿐입니다.

단지 승천하는 엘리야에게 자기의 마음을 묶어서 하늘로 올려 보내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이 땅에서 활동하시기 위한 밑천으로 삼으셨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14: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육체를 밑천삼음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남 왕국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의 접근이 단절된 북 왕국 이스라엘 내에서 살아있는 인격적 성전으로서 존재했던 것인데 성전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을 추구하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성전의 역할이므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며 실현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나의 구원이 됩니다.
내가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내 몸이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밑천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의 몸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머물던 장소였음을 강조하시기 위해 마지막 사건이 일어났는데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에 묻힙니다.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동굴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이후 해가 바뀌어서 엘리사의 시신이 뼈만 남았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장례를 치르려다 모압 도적떼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마침 시신을 엘리사의 무덤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살아나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 뼈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엘리사의 인격이 떠난 육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의 육체에 시체가 닿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상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던 장소였음을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너희 육체를 밑천으로 삼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육체를 밑천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본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동여맬 때에 엘리야가 길갈을 떠나고 벧엘을 떠나고 여리고를 떠났듯이 예수님과 묶인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초콜릿을 먹고 사과를 먹으면 아무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마음속 깊이 세상일이 은근히 잘 되기를 기대하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칠십 인 제자를 파송하신 후에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후에 돌아

와서 보고하자 눅10: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요15:11, 17:13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신 후에 남을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지신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될 때에 내 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 활동의 밑천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았을 때에 살아났던 것은 엘리사의 몸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었는데 엘리사의 마음은 엘리야의 승천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주님과 동일시되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서는 더 이상 기쁨을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강도가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대해 느끼는 강도가 활성화 될 때에 이 몸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거하시는 거점이 됩니다. 엘리사처럼 늙어서 죽을 때까지의 나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밑천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돈은 없어도 되고 팔이 없어도 되고 다리를 절더라도 됩니다. 뇌성마비로 온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마음만 하늘로 보낼 수 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철저하게 죽을수록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고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로 못하실 일이 없으신데 우리가 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밑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밑천이 부족하고 가방끈이 짧고, 집안에 돈이 없고, 젊은 시절에 스펙을 쌓지 못했다고 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회구조는 개천에서 용이 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은 형편없는 환경에서 출중한 인물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용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크거나 작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큰일을 이루시든지 작은 일을 이루시든지 성공지수로 보면 둘 다 백점입니다. 하나님의 거점이 된다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백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점으로 육체가 밑천으로 사용되었다면 나라를 살리고 구원하는 대통령도 똑같은 백점입니다.

이제 우리 몸을 밑천 삼아서 생의 이력을 다시 한 번 써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늘에서 끝장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픈 일을 마음껏 하시도록 우리 마음은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따라서 하늘로 완전히 빠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허락하신 이 대단한 밑천인 우리의 몸이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 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